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6, pp.1-50  
<https://doi.org/10.29212/mh.2020..11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6·25전쟁 초기 작전

— 전투일지, 함흥에서 낙동강까지 —

박희성\*

1. 머리말
2. 전쟁준비와 1단계 작전
3. 남으로 전진과 2단계 작전
4. 재편성과 3단계 작전
5. 맺음말

## 1. 머리말

북한군, 즉 조선인민군에 관한 연구는 6·25전쟁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먼저 창군과 발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의 전략과 지휘방침, 전쟁수행 방법 등

\* 육군군사연구소 전쟁사연구과 책임연구원

이 연구되었다.<sup>1)</sup> 다음으로 개전 당시 작전계획과 초기 작전수행은 연구자의 관심 분야였는데 전쟁의 배경과 원인, 침략의 주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였다. 북한군의 전쟁 전반기 수행과정이 밝혀졌으며,<sup>2)</sup>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용진전투가 연구되었다.<sup>3)</sup> 해방 이후부터 창설 시기까지 북한군의 구성과정 등 다양한 모습도 밝혀졌고,<sup>4)</sup> 간부양성교육, 정치훈련, 비정규전 교리 및 교범, 도하작전도 연구되었다.<sup>5)</sup> 연대급 이하 조직편제와 간부분석에 관한 연구와<sup>6)</sup> 포병과 기갑전도 별도 연구되었다.<sup>7)</sup>

- 1)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총서 5, 2006; 장준익, 『北韓人民軍隊史』, 서문당, 1991;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의 군사』, 경인문화사, 2006; 윤경섭, 「한국전쟁기 북한군 ‘인민군최고사령관’제도 도입의 과정과 의미」, 『사림』 65, 2018.
- 2)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 수행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고재홍,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전쟁지도체계 연구」, 『현대북한연구』 8(2), 2005; 고재홍, 「북한군의 비상시 평시 군사 지휘체계 연구」,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2005; 윤경섭, 「한국전쟁기 북한군 ‘인민군최고사령관’제도 도입의 과정과 의미」, 『사림』 65, 2018.
- 3) 김광수, 「한국전쟁 개전 당시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용진전투」, 『군사』 41, 2000.
- 4) 서홍석, 「조선인민군 총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1948~1950)」,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한성훈, 「조선인민군의 당-국가 인식과 인민형성-동원, 징병, 규율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89, 2011; 김선호, 「북한 보안간부훈련 대대부의 간부 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역사문제연구』, 38, 2017;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 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 『군사』 102, 2017; 「해방 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 『군사』 82, 2012; 「해방 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86, 2012; 「해방 직후 조선민주당의 창당과 변화」, 『역사와 현실』 61, 2006;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 의미」, 『현대북한연구』 15(3), 2012.
- 5)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군 간부 양성교육에 대한 고찰, 1945~50」, 『한국군사학논집』 69-3, 2012; 「6·25전쟁 이전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징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4(2), 2011;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비정규전 교리와 그 함의」, 『통일정책연구』 21(2), 2012;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연구」, 『군사』 83, 2012; 「낙동강 영산전투시 북한군의 도하작전 분석」, 『군사』 78, 2011.
- 6) 이성춘박희성, 「6·25전쟁 시 북한군 연대편성과 해외파 간부연구」, 『인문사회』 21, 제11권 3호, 2020.
- 7) 김경수, 「인민군 포병의 초기 성장과정 연구 : 창설기부터 한국전쟁기간을 중심으로」,

또한, 북한 공군과 해군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비행사단 관련 내용 및 공군의 초기 전력 현황과 괴멸, 재건과정이 고찰되었으며,<sup>8)</sup> 공군 간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실체도 해명되었다.<sup>9)</sup> 북한 해군에 관해서는 먼저 수상함 위주의 북한 해군의 전쟁준비와 초기 해상전투의 모습이 밝혀졌고,<sup>10)</sup> 이어서 해안포병연대의 작전도 분석되었다.<sup>11)</sup>

그동안 국내 공간사나 여러 연구에서 기술되는 북한군은 대부분 국군의 작전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였다. 국군의 어느 부대가 전투를 벌인 적군일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서술이 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국군 부대별 작전 수행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지만, 북한군 부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것은 북한군 부대별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군의 모든 부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주요 부대를 연구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대한 연구성과는 꽤 있지만, 현재까지 사단 단위의 전투와 작전을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 논문은 기존의 6·25전쟁 연구에서 간과된 주제를 새로운 형태로 처음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일련의 연구를 새롭게 시도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분석하려는 부대는 북한군 제2보병사단이다. 제2보병사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2보병사단은

---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권주혁, 「한국전쟁 기갑전의 전투패턴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8) 이신재, 「6·25전쟁기 북한 공군의 성장 과정 고찰」, 『군사』 89, 2013.

9) 김선호, 「한국전쟁 이전 북한 공군 간부의 구성과 정치연합체제의 구축」, 『현대북한 연구』 19, 2016.

10) 박희성, 「북한 해군의 6·25전쟁 준비와 초기 전투 : 제599군부대 창설과 전사 기록」, 『군사연구』 147, 2019.

11) 박희성, 「6·25전쟁 초기 북한해군의 해안방어 작전 : 원산 제588군부대 작전을 중심으로」, 『사충』 98, 2019.

이른바 정예사단이었고, 개전 이전 실시한 검열에서는 최우수로 평가되었다. 북한군은 전쟁 초기 7개의 사단을 투입하였고, 그중 제2보병사단은 후방 예비대가 아닌 최전선 부대로 주력 부대였다. 그래서 개전 초기에 중요 축선인 춘천 축선에 투입되었다. 춘천을 점령한 후에는 신속히 기동하여 서울 남쪽에서 국군을 포위하는 주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춘천 조기 점령에 실패하였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춘천 공격 실패, 곧 국군 입장에서는 춘천 방어 성공은 전쟁의 전체 양상을 바꾼 전투였다. 실패 결과 사단장까지 교체되는 굴욕을 겪었다. 하지만 이후 계속 남진하여 낙동강 전선까지 투입된 6·25전쟁에서 큰 영향을 끼친 사단이며, 전쟁 초기 북한군의 작전을 살펴보는데 대표성을 가진 사단 중 하나이다. 비록 춘천 전투에서 최초 계획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후 낙동강 전선까지의 공격은 부여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냈다. 그리고 예비대로 재편성 후 낙동강 도하라는 중요한 작전에 투입된 사단이다. 전쟁을 대표하고 특징지을 수 있는 보병사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군 노획문서(U.S NARA collection of the seized documents in the Korean War)인 RG242에 있는 북한군 제2보병사단 자료를 주로 활용했다. 북한 관련 사료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미군 노획문서이다. 노획문서는 평양, 원산, 함흥 등 북한 지역에서 입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수원, 대전 등 남한지역에서도 다수 확보되었다. 또한, 미 공군에 의해 주요 공항(김포공항, 흥남의 연포공항 등)에서도 입수되었다. 현재 미 국립문서기록청(NARA)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문서는 약 2,607Box 이상으로 추정된다.<sup>12)</sup> 노획문서에 생각보다 많은 북한 자료가 있다. 그러나 북한군 관련 사료는 찾기 힘든 편이다. 특히나 실제 작전이나

12)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변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 109, 2018, 511-515쪽.

전투와 관련된 가치 있는 사료를 찾는 작업은 정말 힘든 작업이다. 또한,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있지도 않아서, 연구자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분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더라도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를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사전 작업을 거쳐, 북한군 제2보병사단과 관련된 문서만을 분류했다. 이 문서들에는 전투명령 같이 기존 공간사에서 활용된 사료들도 있고, 공병부대의 활동상 같은 것들은 활용되지 못하고 묻힌 사료들도 있었다.

필자는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RG242 자료 중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재정리하고, 기존 공간사 등에서 다룬 사료뿐만 아니라 다루지 않은 사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북한군 제2보병사단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단계를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북한군을 다루는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 단계 구분이 아닌 북한의 구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에서 간행한 “조선전사 25 현대편 조국해방전쟁사 I”에 따르면 이 논문에서 다루는 시기인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총 5단계로 구분했다.<sup>13)</sup> 하지만 북한군 전체 단계를 이 연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에 제2보병사단의 작전 투입과 실제 작전수행, 그리고 예비대 임무를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1단계는 함흥에서 춘천-가평 전투까지이며, 2단계는 한강 도하에서 황간까지이고, 3단계는

13)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제1차 작전(1950.6.25~6.29)은 “조선인민군의 반공격, 서울 행방 및 적에 대한 연속적인 타격”기이며, 제2차 작전(1950.6.30~7.6)은 “한강도하와 적에 대한 연속적인 타격, 미제침략군 지상부대 선견대의 소멸”기이며, 제3차 작전(1950.7.7~7.20)은 “전전선에서의 적에 대한 맹렬한 타격, 대전 해방작전의 빛나는 승리”기이며, 제4차 작전(1950.7.21~8.20)은 “공화국남반부의 넓은 지역의 해방, 조선인민군부대들의 락동강계선으로의 진출”이며, 제5차 작전(1950.7.21~8.20)은 “락동강계선에서의 인민군부대들의 영웅적 투쟁”기이다.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현대편 조국해방전쟁사』 I, 사회과학원, 1981, 2-8쪽.

예비대로 재편성 및 낙동강 진출까지이다. 마지막으로 노획문서는 북한군이 서술하여 북한군의 일방적인 입장만 기록되었다는 사료상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서술에 각별히 주의했다.

## 2. 전쟁준비와 1단계 작전

### 가. 38도선으로 전개

북한군 제2보병사단은 철도경비대와 보안훈련소를 통합 개편한 나남의 보안간부 제2훈련소를 전신으로 창설되었다. 1949년 말부터 동해안에서 대대훈련으로부터 사단급의 공지협동훈련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전투훈련을 실시하였고, 산악전에 중점을 두고 훈련했다. 개전 당시 대부분의 병사는 6개월 이상의 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1950년 초 검열단이 실시한 평가에서 북한군 7개 사단 중 최우수사단으로 선정되었다.<sup>14)</sup> 사단은 경험 많은 소련군 교관들을 사단사령부는 물론 각 연대본부에 1명씩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수 군사훈련에 비해 정치적 사상교육이 강조된 결과, 전술교리훈련은 전체시간의 60%를 넘지 못했으며, 40% 이상을 공산당 선전교육에 치중했다.<sup>15)</sup> 사단은 4연대, 6연대, 17연대와 포병연대(3개 포병대대)로 편성되었고,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251군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포병화력으로는 122mm 곡사포 12문, 76mm 견인포 36문, 76mm 자주포 16문, 45mm 대전차포 43문 등 107문을 보유하고 있었다.<sup>16)</sup> <표 1>은 노획문서와 국군 전투

14)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나남출판, 1996, 346쪽.

15)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국방부, 2006, 433-444쪽.

상보17)를 통해 확인되는 주요 직위자를 정리한 현황이다.

<표 1> 주요 편제 및 직위자

| 부대명                 | 단대호    | 직책        | 성명           |
|---------------------|--------|-----------|--------------|
| 인민군 최고사령부           |        | 최고사령관     | 김일성          |
| 전선사령부               |        | 총사령관      | 김책           |
|                     |        | 참모장       | 강건           |
| 제1군집단               |        | 사령관       | 김웅           |
| 제2보병사단              | 235군부대 | 사단장       | 소장 이청송 => 최현 |
|                     |        | 참모장       | 현과           |
| 사단 공병부              |        | 제5과장(공병장) | 리갑녕          |
| 사단 문화부              |        | 문화부대장     | 최봉철          |
| 4연대                 | 238군부대 | 공병장       | 조병순          |
| 6연대                 | 244군부대 | 연대장       | 김정           |
|                     |        | 공병장       | 박희만          |
| 17연대 <sup>18)</sup> | 242군부대 | 연대장       | 최레문          |
|                     |        | 공병장       | 박현(박복현)      |
| 포병연대                | 247군부대 | 연대장       | 만진동          |
| 사단직할 공병대대           | 251군부대 | 대대장       | 류병준          |
|                     |        | 참모장       | 정명순          |

16)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국방부, 2005, 419-420쪽.

17)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1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육군본부, 2013, 15쪽.

18) 1950년 상반기(3월~5월) 작성된 봉급수지 증빙서류들을 분석하면, 당시 17연대 소속의 군관과 하전사 및 전사들의 명단과 봉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연대장 9급 최레문은 '46.9.10. 임관하였으며 기본봉급 3,500원에 복무수당 1,350원을 더하여 4,850원을 수령했다. 기타 직책의 기본봉급은 대대장 2,500원, 부대대장 1,900원, 중대장 1,700원, 소대장 1,400원, 특무장 300원, 지도원과 부소대장 200원, 분대장 150원, 부분대장 100원, 전사 50원 수준이었다. 『봉급수지 증빙서』, 242군부대,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0789. \* 이하 각주부터 "NARA, RG242" 생략.

국내 공간사에 제2보병사단은 1950년 6월 12일 함흥을 출발하였고, 원산, 철원, 김화를 거쳐 화천으로 이동하였다<sup>19)</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표 2>의 철도운송 계획표<sup>20)</sup>를 보면 실제 세부 내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모든 부대가 12일 동시에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 시각은 6월 12일 23:50부터 14일 12:26까지였다. 첫 열차가 12일 23:50에 출발한 상황에서 출발일을 단순히 6월 12일이라고 공간사에서 기록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한다. 선덕에 주둔하던 17연대만 인근 부평역에서 출발하였고, 사단(-)은 함흥역에서 출발했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 당시 사단의 부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노획문서로 남아 있는 철도운송 계획에는 4연대(또는 추가 부대)가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동일한 연대급인 6연대와 17연대의 계획을 통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전 전 다수의 부대가 38선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철도를 활용하여 이동을 선호하였을 것이며, 철도운송은 치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다.

<표 2> 철도운송 계획표

| 부대 명칭      | 열차 번호 | 차판 | 구분대   | 역  | 시간           |              | 열차장   |
|------------|-------|----|---|----|--------------|--------------|-------|
|            |       |    |   |    | 도착           | 출발           |       |
| 6연대<br>1대대 | 4312  | 20 | 1대대부, 1·2중대, 중기중대, 박격포중대, 45mm포소대, 통신소대                           | 함흥 | 6.12<br>1800 | 6.12<br>2350 | 1대대장  |
| 1대대        | 310   | 20 | 3중대, 반전차소대, 공급소대, 위생소대, 연76mm포중, 통신중대                             | "  | 2000         | 6.13<br>0125 | 3중대장  |
| 2대대        | 314   | 20 | 2대대부, 4·5중대, 중기중대, 박격포중대, 45mm포소대, 통신소대                           | "  | 2200         | 0310         | 2대대장  |
| 2대대        | 3352  | 20 | 6중대, 연대참모부, 자동총중대, 120mm포중대, 경비소대, 경찰소대, 위생소대, 공급소대, 반전총소대, 고사총소대 | "  | 2300         | 0432         | 연작전참모 |

19) 군사감실, 『6·25사변사』, 육군본부, 1959, 66쪽.

20) 『第2師團 鐵道輸送 計劃表』, 제2보병사단장 이청송 비준, 1950.6.,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0708.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6·25전쟁 초기 작전 | 9

|             |      |     |   |    |              |              |        |
|-------------|------|-----|---|----|--------------|--------------|--------|
| 3대대         | 316  | 20  | 3대대부, 7·9중대, 중기중대, 박격포중대, 45mm포소대, 통신소대                               | "  | 2400         | 0502         | 3대대장   |
| 3대대         | 3202 | 20  | 9중대, 연45mm포중대, 수의소, 운수중대, (고사총소대3분대)                                  | "  | 6.13<br>0200 | 0723         | 9중대장   |
| 6연대<br>후방부  | 3302 | 18  | 군의소, 후방부, 수계소, 피복수리소, 후방물자  | "  | 0300         | 0834         | 군의소장   |
| 6연대<br>계    |      | 138 |   |    |              |              |        |
| 포연대1<br>대대  | 3404 | 20  | 1대대부 및 대대직속구분대, 3·4중대   | "  | 0400         | 0939         | 포연1대대장 |
| 참모부         | 4318 | 20  | 연참모부, 지휘중대, 운수소대, 수리소대, 1대1중대   | "  | 0500         | 1050         | 작전참모   |
| 3대대         | 3204 | 20  | 3대대부 및 직속구분대, 8·9중대   | "  | 0700         | 1226         | 3대대장   |
| 후방부         | 322  | 20  | 3대7중대, 후방구분대(군의소), 후방부물자  | "  | 1000         | 1500         | 7중대장   |
| 포연대<br>계    |      | 100 | 공병대대에서 적재한 2대대 4중대분을 포함시킴   |    |              |              |        |
| 사단<br>참모부   | 3402 | 20  | 사참모부, 경찰중대, 경비소대, 정치보위소대, 경무부, 야전우편소, 교대1·2중대, 대대부및직속, 정치보위부, 검찰, 재판소 | "  | 1100         | 1612         | 작전1열과장 |
| 통신<br>대대    | 4324 | 20  | 통신대대, 교도대중기, 박격포중대, 반전총소대   | "  | 1300         | 1808         | 통신대대장  |
| 반전차<br>포대대  | 306  | 20  | 반전차포총대대   | "  | 1500         | 2024         | 반전포대대장 |
| 직속대<br>계    |      | 60  | 자동포대대8대와 (공병대대15대도 포함)  |    |              |              |        |
| 17연대1<br>대대 | 3206 | 20  | 1대대부 및 1·2중대, 중기중대, 박격포중대, 45mm포소대, 통신소대                              | 부평 | 1700         | 2216         | 1대대장   |
| 1대대         | 4312 | 20  | 3중대, 반전차소대, 공급소대, 위생소대, 연76mm포중, 통신중대                                 | "  | 1800         | 2350         | 3중대장   |
| 2대대         | 310  | 20  | 2대대부 및 4·5중대, 중기중대, 박격포중대, 45mm포소대, 통신소대                              | "  | 2000         | 6.14<br>0125 | 2대대장   |
| 2대대         | 314  | 19  | 6중대, 연대참모부, 자동총중대, 120mm포중대, 경비소대, 경찰소대, 위생소대, 공급소대, 반전총소대, 고사총소대     | "  | 2200         | 0310         | 작전참모   |
| 3대대         | 322  | 20  | 3대대부 및 7·9중대, 중기중대, 박격포중대, 45mm포소대, 통신소대                              | "  | 6.14<br>1000 | 1500         | 3대대장   |
| 3대대         | 3402 | 20  | 9중대, 연45mm포중대, 수의소, 운수중대  | "  | 1100         | 1610         | 9중대장   |

|              |      |     |                            |    |              |      |             |
|--------------|------|-----|----------------------------|----|--------------|------|-------------|
| 후방부          | 3352 | 18  | 군의소, 피복수리소, 수계소, 후방부, 후방물자 | "  | 6.13<br>2300 | 0432 | 군의소장        |
| 17연대<br>계    |      | 137 | 매 대대에 고사소대 1분대씩<br>배속하였음   |    |              |      |             |
| 자동포<br>대대    | 316  | 20  | 자동포대대                      | 함흥 | 2400         | 0500 | 자동포<br>대대장  |
| 운수중대<br>및 후방 | 3202 | 20  | 식량, 건량                     | "  | 6.14<br>0200 | 0723 | 식량과장        |
| "            | 3302 | 20  | 상동                         | "  | 0300         | 0340 | 조직계획<br>부과장 |
| "            | 3404 | 20  | 기타물품, 화목, 연유               | "  | 0400         | 0939 | 군○○         |
| "            | 4318 | 20  | 탄약및자동차                     | 홍남 | 0500         | 1054 | 운수중대장       |
| 군의<br>대대     | 3204 | 20  | 군의대대자동차(운수중대차포함)           | 함흥 | 0700         | 1226 | 군의대대장       |
| 계            |      | 120 |                            |    |              |      |             |

\* 출처 : 『第2師團 鐵道輸送 計劃表』

김화에 도착한 제2보병사단은 6월 17일에 추곡리,<sup>21)</sup> 장촌리,<sup>22)</sup> 원천리<sup>23)</sup> 지역에 집결했다.<sup>24)</sup> 6월 11일까지 이미 제5과장에 의해 사단 비상용 폭발물 및 부속품 통계표 작성을 완료<sup>25)</sup>하는 등 어느 정도 전쟁준비는 되었지만, 실제로는 부족함이 많았다. 6월 17일 16:00에 장거리에 무사히 도착한<sup>26)</sup> 17연대는 부대 지휘소를 비롯한 공병기술작업을 진행하였지만, 기술자재 부족으로 계획적인 작업이 되지 않았다. 이에 연대 공병장(工兵長)은 기술자재를 신청했다.<sup>27)</sup> 인원은 충원되었지만, 무기나 기타 장비 부족 현상은 사단 내 대부

21) 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22) 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23) 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24)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423쪽.

25) 『師團非常用폭發物및其의附屬품통計表』, 제5과장 리갑녕, 1950.6.11., SA2009, Box7, Item#42.

26) 『工兵小隊集結區域到着에 關하여』, 242군부대 공병장 박현, 1950.6.18., SA2009, Box7, Item#42.

27) 『工兵技術器材申請에 關하여』, 242부대 공병장 박현, 1950.6., SA2009, Box7, Item#42.

분의 부대가 비슷했을 것이다. 이는 전쟁준비가 부실했고, 급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박명림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 시작 후 인민군 하급부대가 상급부대에게 보내는 전투보고의 많은 요구들은 무기 부족상태를 해결해 주는 데 초점이 놓여 있었다. 어떤 부대들은 전쟁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장비를 요구하고 있었다.<sup>28)</sup> 이런 모습은 한강 도하와 김천에서의 재편성 등에서 보인다고 보인다.

<표 3> 공병기술기재 신청목록

| 기재명        | 단위 | 편제수량  | 접수한 수량 | 부족수량 (신청수량) | 비고         |
|------------|----|-------|--------|-------------|------------|
| 공병삽        | 개  | 518   | 200    | 318         |            |
| 大刀끼        | "  | 168   | 2      | 166         |            |
| 大刀끼집       | "  | 9     | 2      | 7           |            |
| 철선절단가위     | "  | 76    | 2      | 76          |            |
| 가로켜는 톱     | "  | 30    | 17     | 13          |            |
| 주머니에 든 소도끼 | "  | 282   |        | 282         |            |
| 하계 위장복     | "  | 120   |        | 12          |            |
| 개인 위장망     | "  | 1,500 |        | 1,500       |            |
| No.4 위장막   | "  | 40    | 1      | 39          |            |
| No.5 위장막   | "  | 15    |        | 15          |            |
| No.A 위장막   | "  | 2     |        | 2           |            |
| No.B 위장막   | "  | 3     |        | 3           |            |
| 小삽집        | "  | 1,800 | 1,700  | 100         |            |
| 폭발도구       | 조  | 1     | 1      | 1           | 폭발기가 發電치않음 |
| 목공도구 No.2  | "  | 1     |        | 1           |            |
| 철공도구 No.11 | "  | 1     |        | 1           |            |
| 수리도구 No.68 | "  | 1     |        | 1           |            |
| 懷中전등       | 개  | 55    |        | 55          |            |
| 휴대전등       | "  | 3     |        | 3           |            |
| 조명셋트       | 조  | 1     |        | 1           |            |
| 지뢰탐지기      | "  | 5     | 2      | 5           | 접수2조는 파손품  |

\* 출처 : 『工兵技術器材申請에 關하여』

28) 박명림, 앞의 책, 403쪽.

기초적인 공병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하장비 역시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다. 그 주된 원인은 1950년 4월에 소련에게 요청한 도하장비 5개 세트 중 1개 세트만이 도착한 것도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sup>29)</sup>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제2보병사단의 경우에도 한강 도하 시 작전에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한강 도하를 위한 공병 부대의 준비는 개시 전 이미 종합되어 계산되었다. 6연대 공병장의 6월 19일자 보고에 따르면 연대의 도하 중량을 308.55톤으로 계산하였고, 폭약은 별도 산출했다.<sup>30)</sup> 이것은 전쟁 전 북한군이 남으로 진격하는 과정에 도하를 중요시했음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강, 금강, 낙동강은 큰 극복과제였다.

<표 4> 6연대 도하 중량 산출 계산표

| 구분  | 종별            | 수량    | 중량(kg) | 전체중량 (t) |
|-----|---------------|-------|--------|----------|
| 인원  | 무장한 전사        | 1,200 | 800    | 96       |
| 마필  | 포마, 치중마       | 43    | 500    | 21.5     |
| 차륜  | 마차 및 우차       | 30    | 600    | 18.0     |
| 자동차 | 화물차 및 승용차, 포차 | 15    | 400    | 60.0     |
| 포   | 120mm 박격포     | 5     | 650    | 3.25     |
|     | 76mm 연대포      | 4     | 1,600  | 6.4      |
|     | 45mm 포        | 7     | 12     | 8.4      |
| 탄약  | 조격탄           |       |        | 15.0     |
|     | 포탄            |       |        | 43.0     |
| 식량  | 식량            |       |        | 28.0     |
|     | 마량            |       |        | 9.0      |
| 계   |               |       |        | 308.55   |

\* 출처 : 『渡河를 爲한 人員 및 戰鬪器材 重量計算表』

29)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서문당, 1981, 145쪽.

30) 『渡河를 爲한 人員 및 戰鬪器材 重量計算表』, 244군부대 공병장 박희만, 1950.6.19., SA2009, Box7, Item#43.

## 나. 공격준비

제2군단의 조공<sup>31)</sup>인 제2보병사단은 춘천-가평을 점령한 후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 국군의 예비전력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제1군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sup>32)</sup> 사단에는 직교,<sup>33)</sup> 565고지,<sup>34)</sup> 청평동<sup>35)</sup> 선을 확보하는 최근임무<sup>36)</sup>와 이후 춘천 방면의 국군 병력집단을 격파하고 석장리,<sup>37)</sup> 계관촌,<sup>38)</sup> 강창리,<sup>39)</sup> 춘천 선까지 진출하는 차후임무<sup>40)</sup>가 하달되었다. 또한, 오후까지 가평을 점령하는 1일차 목표와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둘째 날 아침부터 가평-서울 간 간선도로를 따라 진격하여 덕소리<sup>41)</sup> 지역에서 한강을 도하하는 2일차 임무가 부여되었다.<sup>42)</sup>

총참모부는 공격부대의 이동이 시작되자 정찰명령과 작전명령, 지령 등을 통해 공격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각 사단에 요구했다. 6월 18일에 하달된 정찰명령 제1호는 각 사단 정면의 국군 상황을 설명하고, 공격대기진지에 진입한 다음 공격개시 전까지, 그리고 공

31) 공격작전 시 주공의 성공을 돕기 위하여 여건 조성작전을 실시하는 전술집단(부대). 육군본부, 『군사용어』, 2017, 168쪽. 북한군 용어로는 보조타격 방향이라고 한다.

32)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423쪽.

33) 춘천 서북방 16km 집다리골, 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34) 춘천 북방 10km 세밀고개

35) 춘천 동북방 13km, 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36) [공격] 동급 제대의 기본역량을 소멸하고 그가 차지한 지대를 점령하여 차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임무.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2017, 296쪽.

37) 가평 동북방 7km

38) 가평 동북방 9km, 달개지

39) 춘천 서남방 3km, 삼천동과 의암호의 접경지역

40) [공격] 동급 제대의 모든 역량을 소멸하고 그가 차지한 지대를 점령하는 임무.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287쪽.

41) 현)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리

42)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국방부, 2001, 156-157쪽.

격개시 후 단계별로 수집해야 할 정보요구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제2보병사단에 하달된 정찰명령은 사단의 진출 방향인 춘천-서울을 연한 도로를 따라 한강을 도하하여 이천-수원 방면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공격개시 전에 관측과 야간 수색정찰로 확인해야 할 임무는 참호 및 관측소의 위치, 국군 주력의 위치와 보급체계 및 화력운용체계, 국군 포병의 진지와 화포의 구경 및 문 수, 38도선-춘천 간 도로상의 대전차포병 배치상황 등이었다. 그리고 공격개시 및 이후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국군의 예비대 편성 및 전선투입, 국군 부대의 철수 시점과 방향, 가평지역의 국군 규모, 경춘선 철로를 이용한 국군 부대의 이동형태, 한강선 진출 시의 첩보 획득이었다.<sup>43)</sup> 공격부대의 기동이 완료될 무렵, 사단 단위로 작전명령을 작성하여 하달되었다. 274.1고지 북협곡에서 하달된 전투명령 제001호<sup>44)</sup>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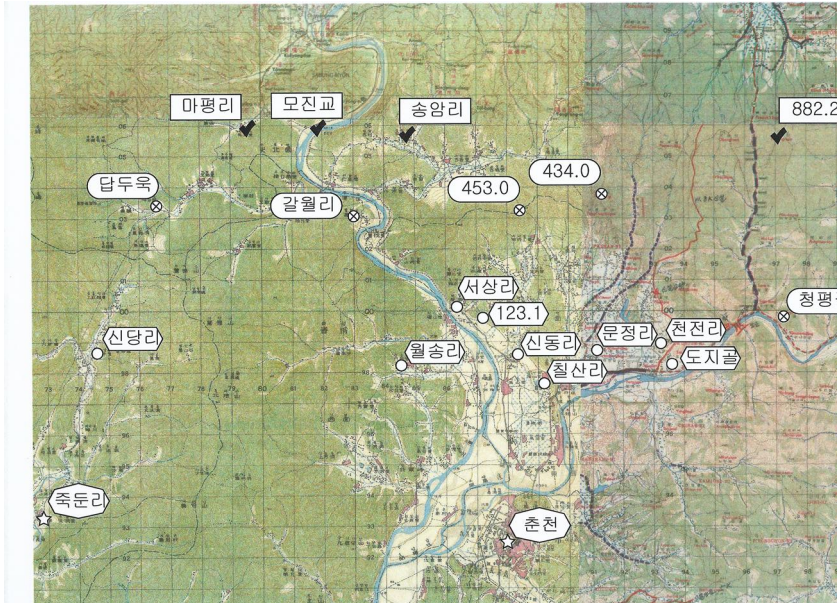
제2보병사단은 공격정면에 “105mm 야포 1개 대대로 증강한 제6사단 7연대 구분대들이 방어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사단은 882.2고지, 송암리, 모진교, 마평리 간에서 국군 방어를 돌파하고 완전소멸하며, 매 산봉(山峯)을 점령하고 답두옥, 갈월리, 453고지, 434고지, 청평골을 점령한 다음, 최근임무로 신당리, 월송리, 서상리, 123.1고지, 신동리, 칠산리, 문정리, 천전리, 도지골을 점령하고, 차후임무로 죽둔리, 춘천 방향으로 공격하여 당일 말까지 해당 지점 점령을 공고히 한 다음 계속 공세를 확대하여 승안리, 가평, 강촌리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격 방향(북→남)을 기준으로 볼 때 사단 우익에는 제3보병사단이 서울 방향으로 공격하고, 좌익에는 제12보병사단이 홍천 방향으로 공격하기로 했다. 다음의 <그림 1>은 사단의 전투명령을 도식한 것이다. 지도는 1950년

43)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429-430쪽.

44) 『戰鬪命令 第001號』, 제2보병사단장 이청송, 1950.6., ATIS Document, No.201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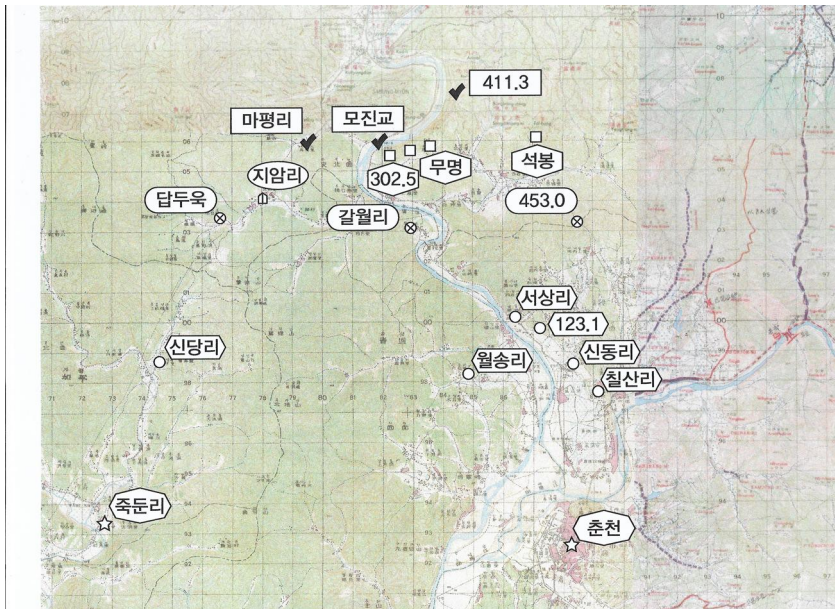
당시 국군의 한글과 미군의 영문지도를 활용하였다. 유의할 점은 당시 북한군이 사용한 지도와는 달라 전투명령에 나오는 지도방안(방격)과는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했다. 특히 좌우는 어느 정도 비슷하나 상하는 통상 약 2~3개 방안 차이가 나며, 고지나 지명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필자가 비교대조하면서 지형만 도식한 이유는 당시 정확한 요도가 없는 상황에서 적전술의 독도법을 적용하여 필자가 임의로 유추하여 선을 긋는 등 독도법 부호를 적용하면 오히려 왜곡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된 지형도만으로도 제2보병사단의 작전실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제2보병사단 전투명령 지형도



이에 따라 제2보병사단은 주공45)을 우측 302고지, 북한강 연안 춘천행 국도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국군의 화점(火點)46)들과 참호를 포착, 기동과 포위 기동으로써 급속히 돌파하여 매 고지를 점령한 다음 좌우 인접부대와 협동하여 춘천에 있는 국군을 완전 포위소멸 하려고 했다. 전투서열은 북한군의 공격 방향 기준, 우익에는 6연대를, 좌익에는 4연대를, 6연대 후방에 17연대를 배치했다.

<그림 2> 6연대 전투명령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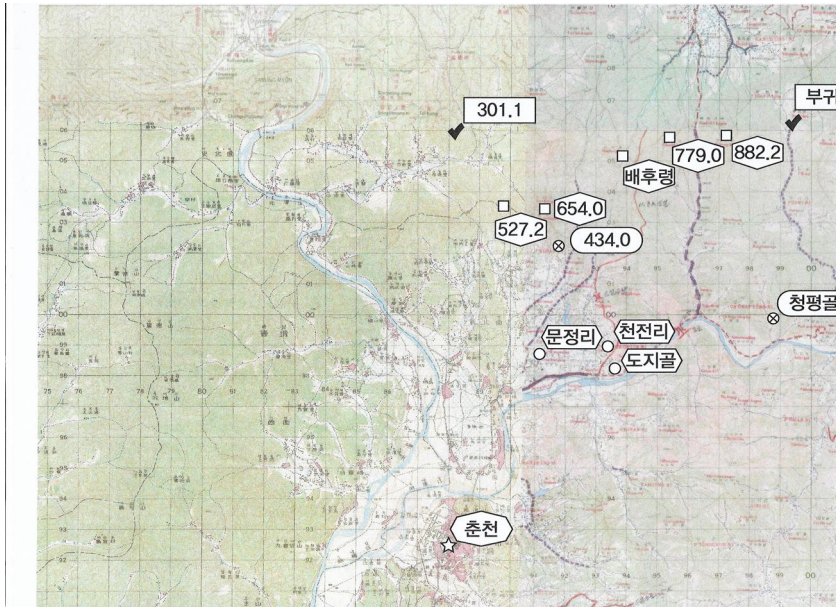
6연대는 반전차포(反戰車砲)대대 2중대, 공병대대 2중대와 함께 마평리, 모진교, 411.3고지 간에서 국군을 돌파하고, 302.5고

45) 공격작전 시 결정적 작전을 위해 운용하는 전술집단. 육군본부, 『군사용어』, 170쪽. 북한군 용어로는 주타격 방향이라고 한다.

46) 기관총이나 포 및 그밖의 사격무기들이 사격할 수 있도록 총구멍 또는 화구를 내고 옷설미를 씌운 축성물.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2017, 340쪽.

지, 826.1고지, 석봉, 371고지에 있는 화점과 참호들을 완전소멸하고 매산봉을 점령하며, 최근임무로 탐주옥(답두옥), 갈월리, 453고지를 1·3대대로 포위소멸한 다음 점령계선을 공고히 하고 차후임무로 신당리, 월송리, 서상리, 123.1고지, 신동리, 칠산리를 1·3대대와 포위소멸한 다음, 춘천 방향으로 북한강 좌우 도로로 전진하여 금산리 소로로 죽둔리 방향으로 진출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제2대대는 647고지, 지암리에 있는 국군을 소멸하고 가평 방향으로 공격하게 하였으며, 포연대 2·3대대와 자동총대대가 지원하기로 했다. 17연대는 6연대의 뒤를 따라 전진하며, 점령한 계선을 공고히 확보하며, 계선에서 전투에 투입할 준비를 하게 했다.

<그림 3> 4연대 전투명령 지형도



4연대는 공병대대 1중대, 반전차대대 1중대와 함께 301.1고지와 부귀대 간에서 방어를 돌파하고, 572.2고지 북경사면, 654고지, 배후령, 779고지, 882.2고지 북경사면에 있는 화점을 완전 소멸하고, 매 고지를 점령하고, 최근임무로 434고지, 청평리를 점령한 다음 차후임무로 문정리, 천전리, 도지골을 점령하고 계속 공세를 확대하여 춘천을 소멸하게 했다.

포병사격 준비완료는 6월 22일 24:00까지며, 준비사격 기한은 30분이었다. 포병 임무는 가까운 중심과 방어 일선에 있는 유생역량과 화점들을 진압할 것, 521고지 등에서 감시를 불허할 것, 사격포와 간접진지에 있는 포들은 527고지 등에 있는 영구화점들을 진압하며 토목화점<sup>47)</sup>들을 파괴할 것, 81고지 동북협곡, 배치리에 있는 자동포(自動砲) 진지를 압도하며 석봉, 치암리에 있는 반전차포 진지를 진압할 것, 국군의 장애물 구역과 지뢰매설지대 등 보병의 통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중심전투 시에는 보병과 자동포의 돌격을 점차 집중사격으로 호송할 것이며, 재생하는 목표와 새로 발견되는 목표들을 압도할 것, 춘천 방향으로 국군 예비대의 접근을 불허하며, 보병과 자동포로 하여금 점령한 계선의 고착을 보장할 것, 제2제대의 전투진입을 보장할 것, 국군의 남방 퇴각을 불허하도록 했다.

공병은 모진교를 확보하며 교량으로 보병의 도강을 보장할 것, 거례리로부터 내촌, 552고지 간 우마차가 통할 수 있는 중대로를 개방할 것, 유촌리, 373.5고지 동경사로, 764고지 북협곡으로 우마차가 통할 수 있는 중대로를 개방할 것, 정면에 있는 지뢰매설을 타개할 것, 중심에서 포병·자동포의 진진을 보장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교도대대, 반전차포대대는 사단 예비대였다. 반항공대책은 연대고사총소대와 함께 부대의 전투서열을 엄호하게 했다. 사단

47) 흙과 나무로 만든 화점을 말하며, 통상 야전축성에서 급조한 화기진지.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302쪽.

교환소와 탄환보급소는 화천에 두며, 후방 군의처도 화천에 두었다. 사단장 지휘소는 6월 22일 24:00부터 480고지 북협곡에 두었다.

6월 21일 04:00에는 271.1고지 협곡에서 예비명령 No.1이 하달되었다. 공격정면에 국군 제6사단 7연대가 참호와 간단한 장애물로 둘러싸인 토목화점과 영구화점으로 방어가 구성된 상황에서 제2보병사단의 임무는 공격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우익 명류동, 좌익 부귀대 일선에서 방어를 돌파한 후 춘천을 점령하고 계속 전진하여 당일 말까지 북한강 구역에 진출해야 한다고 했다. 군관 지휘정찰은 21일 06:00부터 20:00까지 실시했다.

6월 24일에는 480고지에서 지령 제15호가 하달되었다.<sup>48)</sup> 공격선 점령은 24일 19:00까지 저녁식사를 완료하고 완전 전투준비를 하고 있을 것, 19:00부터 20:30까지 중대별(혹은 대대별)로 군무자 동원 회의를 조직 실시하여 이 기간에 중대장들은 간단한 전투준비상태 검열을 실시할 것, 20:30에 출발진지 점령 진출 개시(각 부대 집결 구역에서 출발진지까지 거리에 따라 시간을 조절할 것), 23:00에 출발진지 점령을 완료하게 했다. 공격출발계선 점령은 국군 방어선과 가까운 거리에 점령하며, 철저한 위장을 실시할 것, 최대의 은폐로 및 은폐지를 선택할 것, 출발진지 점령 후에는 휴식을 하되 휴식 시에는 철저한 경계를 조직할 것, 휴식 시의 경계 조직 시와 앞으로 경계와 휴식 조직 시는 각 연대장급, 각 대대장급, 중대에서는 소대장 중에서 1명씩 책임지고 직일군관을 지정하게 했다. 출발진지 점령시에 마필, 자동차는 출발진지에 정돈시키지 말 것을 하달하는 등 최종 공격준비 완료를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부대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병이 먼저 작전을 실시했다. 6월 24일 19:00부터 25일 04:00까지 공병 1중대는 4연대에 배속되어 연대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지뢰통로 6개소를 개

48) 『指令 第15号』, 제2보병사단 참모장 현파, 1950.6.24., ATIS Document, No.200767.

척했다. 공병 2중대는 6연대에 배속되어 연대장의 전투명령을 받고 연대 통과로 보장을 위해 전방으로 나와 24일 22:00부터 25일 04:00까지 지뢰를 해체하여 연대를 무사히 통과시켰다.<sup>49)</sup>

#### 다. 춘천-가평 전투

춘천-가평 전투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었다. 전쟁 초기 중요한 전투 중 하나였던 춘천 전투에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가능한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고 상세한 서술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현재 공간사나 독립된 연구에서도 국군의 입장에서 주로 연구가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군과 북한군의 작전을 상호 비교하는 것은 가치가 높고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연구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노획문서에는 춘천-가평 전투 자료가 235군부대 공병장의 보고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차후 제2보병사단의 전투보고 등의 각종 문서가 확인되면, 그때 국군 제6사단의 전투상보<sup>50)</sup> 및 정기보고 등과 상호 비교하면서 춘천-가평 전투를 제대로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국군 7연대는 좌측 제7사단과의 협조점으로 설정된 가평 적목리로부터 춘천 동북쪽의 764고지(계명산)<sup>51)</sup> 남쪽에 이르는 방어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주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화천-춘천 방면에 3대대를, 조공의 공격로로 예상되는 양구-춘천 방면에 2대대를 배치했다. 그리고 화천-가평간 접근로에는 3대대 10중대를 방어정면에 배치하고, 11중대는 대대 예비로 춘천에 두고

49) 『報告書 戰鬥경과 報告에 關하여』, 공병대대장 류병준, 1950.6.29., ATIS Document, No.201103.

50)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28輯 5·6사단 戰鬥祥報』, 육군본부, 2013, 337-420쪽.

51) 춘천시 북산면과 인제군 남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

있었다.<sup>52)</sup> 공식적으로 춘천이 점령되고 소양강 도하를 한 날은 6월 27일이다.<sup>53)</sup> 제2보병사단은 6월 25일 04:00경 국군 7연대 방어진역에 대해 공격을 개시했다. 약 1시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이 끝나고 주공인 6연대가 국군 3대대 9중대의 방어정면으로 공격했다. 또한, 조공인 4연대는 국군 7연대 2대대의 방어정면으로 공격을 했다. 최종 전투결과, 최근임무인 춘천을 27일 15시 완전히 점령하고 계속 진공하여 가평리를 28일 3시에 완전히 점령했다. 가평은 28일 17시에 출발했다.<sup>54)</sup> 하지만 춘천 전투에서의 비효율적인 전투지휘로 작전에 차질을 가져온 제2보병사단은 6월 28일 사단장이 이청송 소장에서 최현 소장으로 교체되었다.<sup>55)</sup> 춘천을 점령한 사단은 가평, 청평, 경안리<sup>56)</sup> 방면으로 압력을 가했다.<sup>57)</sup>

춘천 전투 결과 국군 입장에서는 수도권 일원에 투입된 국군 주력이 포위될 위험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 북방에서 철수한 국군 병력이 한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차후 작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초기 결전장으로서 서울을 목표로 정하고, 주·조공의 협공작전을 펼침으로써 목표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조공의 작전 실패로 인하여 목적인 바인 국군의 주력을 섬멸하지 못했다. 이로 말미암아, 작전상 전반적인 차질을 빚게 된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북한군은 그 이후로부터는 전 전선에 전투력을 균등하게 전개하여, 각 전투부대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격하는 전법

52)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442쪽.

53) 전사편찬회, 『韓國戰亂 一年誌 1950~1951』, B11쪽.

54) 『報告 제7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6.28., SA2009, Box7, Item#43. 사단 공병장의 사료와 달리 예비대로 후속하던 17연대는 6월 28일 12시 5분에 춘천을 완전히 점령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종합전투보고』, 242군부대 공병장 박현, 1950.7.4., SA2009, Box7, Item#43.

55)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451쪽.

56) 현) 광주시 경안동

57) 육군정보국, 『괴뢰군연혁』, 육군본부, 1958, 79쪽.

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sup>58)</sup> 전쟁 후 소련의 평가에도 남동쪽에서 우회하여 서울에 위치한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해야 했던 제2보병사단 등은 사단장의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험한 지형과 포병이 공격부대를 제대로 후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무를 완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sup>59)</sup>

### 3. 남으로 전진과 2단계 작전

#### 가. 한강 도하 및 용인, 이천, 안성, 진천

제2보병사단은 한강 도하 후 기동로를 변경하여 7월 2일에 김량장(용인) 및 곤지암 방향으로 기동했다. 국군이 배치되지 않은 이천, 장호원, 진천, 음성 지역으로 은밀히 기동하여 국군의 후방을 차단하여 섬멸하고자 기도했다.<sup>60)</sup> 공병대대는 6월 28일 17:00에 가평을 출발하여 29일 19:00에 상팔리<sup>61)</sup>에 도착하여 30일 도하를 지원했다.<sup>62)</sup> 한강 도하 지점은 팔당리(양수리 포함<sup>63)</sup>)였다. 처음

58) 김기옥, 「한국전쟁 초기, 춘천 흥천 전투가 전세에 미친 영향」, 『군사』 12, 1986, 47-48쪽.

59) *Авский Коплев, Война в Коре, 1950-1953, Идеяство Гбисн*, 2003, СПб, с.75. 1956년에 소련 국방성에서 비공식 발간되었던 이 책은 현재 국내에 두 번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리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韓國 戰爭』, 오비기획, 2002. (완역); 이은연 역, 『소련이 기술한 6·25전쟁 I』, 육군군사연구소, 2019. (육군군사연구소는 2017년 1차로 부록을 먼저 번역하여 발간하였고, 본문은 총 4권의 전집으로 2022년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60)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323쪽.

61) 현) 가평군 하면 상판리

62) 『報告 제8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6.30., SA2009, Box7, Item#43.

63) 6연대 공병장 보고에는 양수리에서 한강을 도하했다고 되어있다. 『報告 공병소대 인원통계 및 부상자통계에 관하여』, 244군부대 공병장 박희만, 1950.7.12., NARA, RG242, SA2009, Box7, Item#43.; 17연대도 양수리에서 도하했다고 보

수행한 강행도하에 공병부대들은 새로 도하기재를 접수하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재를 가지고, 유엔군 항공기의 비행 속에서도 사단의 전투역량을 전부 도하시켜 전투를 보장했다.<sup>64)</sup> 한강을 도하한 사단은 7월 3일 광주를 점령하였고, 이천에서 전투를 벌였다. 공병대대는 대부분을 도하시키고 포차(砲車) 일부와 자동포 및 독립대대 후방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sup>65)</sup> 하지만 7월 3일에 도하를 위한 도하기재 지원과 도하를 위한 항공지원을 3일 19:00부터 5일 18:00까지 요구했다.<sup>66)</sup> 6월 29일 야간부터 개시된 팔당리 구역 한강도하는 도하기재 부족으로 인하여 7월 4일까지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 보병부대 및 독립구분대와 소유하고 있는 무기, 고사기관총, 각종 포, 포차 등은 완전 도하하였으며 탄환과 연유도 다수 도하했지만, 자동차 30대, 마차 40대, 연유 20톤, 식량 80톤, 탄환 68톤, 자동포대대는 도하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도하기재인 A3 공기선 2개조와 텃세루(ДЦЛ, 접이식 상륙정) 15척으로는 많은 시일이 경과할 수 있으며, 특히 자동포는 도하기재가 없어 도하가 불가능했다. 이에 사단 공병장은 상급부대 공병장에게 자동포를 도하할 수 있는 엠 누바 빼(H2П, 중철주(重鐵舟)세트)를 보내주기를 요망했다.<sup>67)</sup> 결국 제2보병사단장은 점령한 지역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도하장비의 부재로 인하여 도하가 지연되어 뒤늦게 따라온 야포와 자주포를 집결시키고, 부대를 재정비한 후 7월 3일 아침에 공격을 재개하였다.<sup>68)</sup> 소련은 북한군의 도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북한군은 여러 큰 강들을 도하해야 했다. 하지만 준비

고되어 있다. 『종합전투보고』, 박현 242군부대 공병장, 1950.7.4., SA2009, Box7, Item#43.

64) 『工兵戰鬥報告』, 238군부대 공병장 조병순, 1950.7.7., SA2009, Box7, Item#43.

65) 『報告 제10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3., SA2009, Box7, Item#43.

66) 『報告 제9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3., SA2009, Box7, Item#43.

67) 『報告 제11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4., SA2009, Box7, Item#43.

68)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보고서』 1, 173쪽.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도하가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도하장소에 도착하는데도 도하를 감행하기도 했다. 도하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고, 도하장비가 부족하여 보병과 경장비들은 보트와 뗏목으로 도하했고, 전차와 자주포 등은 노획한 선박이나 교량이 복구된 후에야 도하가 가능했다.<sup>69)</sup>

한강을 도하한 제2보병사단은 광주-김장량리 방면에 4연대를 투입하고, 6연대를 곤지암과 임원리 방면으로 우회토록 했다. 이어 안성-진천-청주 점령 전투에는 포병을 중앙에 배치, 도시에 포격을 가한 후 국군의 측방으로 기동하여 타격을 가하는 전술을 사용했다.<sup>70)</sup> 주력 4연대는 7월 1일 02:00부터 06:00경에 한강 도하를 끝마치고 광주, 김량장리,<sup>71)</sup> 안성에 있는 국군 잔병과 전투했다. 그리고 7월 6일 아침 진천에 도착했다.<sup>72)</sup> 6월 28일 춘천을 점령한 17연대는 가평, 마석우리<sup>73)</sup>를 지나 양수리에서 도하하여 광주를 지나 고산리<sup>74)</sup>와 왕산리를 지나 7월 2일 21:00에 고림리<sup>75)</sup>에 집결했다.<sup>76)</sup> 17연대는 7월 1일 아침 남한산성 동쪽 595고지 부근에서 이천지구 전투사령부와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다.<sup>77)</sup> 제2보병사단은 7월 6일 짧은 시간 포병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안성으로 진격을 시작하였으며, 국군의 저항을 별로 받지 않고, 17:00 무렵 안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7월 7일 10:00까지 예하부대를 정비하였다.<sup>78)</sup> 17

69) *Августий Кюгелъ, Вѣн в Коре*, 1950-1953, с.102-103.

70)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431쪽.

71) 현) 용인시 중앙동

72) 『報告 공병소대인원통계 및 부상자통계에 관하여』, 244군부대 공병장 박희만, 1950.7.12., SA2009, Box7, Item#43.

73) 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74) 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75) 현) 용인시 모현읍 왕산리

76) 『중합전투보고』, 242군부대 공병장 박현, 1950.7.4., SA2009, Box7, Item#43.

77)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448쪽.

78)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 보고서』 1, 186쪽.

연대 공병대대는 7월 5일 19:00에는 167.8고지를 떠나 김량장리를 통과하고, 안성읍에 7월 7일 02:00에 도착하여 연대장 감시소를 설치했다. 7월 7일 14:00에 행군을 개시하였고, 7월 8일 13:00에 니리에 도착했다.<sup>79)</sup> 제2보병사단은 춘천 전투 동안 상당한 병력손실을 입었으며, 제2차 작전과정에서도 유엔군 항공폭격으로 보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인명손실에 대한 병력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량마저 부족했으나, 야음을 이용해 운반된 탄약은 충분하게 보급되었다.<sup>80)</sup>

안성 지역으로 진출한 후 제2보병사단은 동남방면으로 진격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sup>81)</sup> 안성 방면과 장호원 방면에서 남진하던 사단은 협조된 공격으로 진천을 점령하고 청주 방면으로 남하할 계획이었다. 선두부대들은 7월 7일 진천 북방 4km 지점에 도달하였고,<sup>82)</sup> 진천 전투가 7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군 수도사단과 벌어졌다. 진천 동쪽을 남북으로 흐르는 강을 따라 병력을 배치한 국군 1연대 경계부대에게 포병의 지원하에 전차 10여대와 함께 많은 병력이 공격을 가했고 후퇴시켰다.<sup>83)</sup> 7월 10일 국군에게 진천을 잠시 탈환당하기도 하였다.<sup>84)</sup> 7월 10일 12:00부터 415고지 일대에 대한 1연대의 반격이 실시되었고 결국 제2보병사단은 고지를 탈취당했다. 이 415고지 반격점령은 수도사단이 개전 이후 최초로 반격에 성공하여 고지를 확보한 것이었다.<sup>85)</sup>

제2보병사단은 진천을 점령유지하고 있던 7월 10일부터 금강 도

79) 『工兵戰鬪報告』, 242군부대 공병장 박현, 1950.7.8., SA2009, Box7, Item#43.

80)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434쪽.

81)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 보고서』 1, 187쪽.

82) 군사감실, 『6·25사변사』, 육군본부, 1959, 94쪽.

83)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2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육군본부, 2013, 704-706쪽.

84) 전사편찬회, 『韓國戰亂 一年誌 1950~1951』, 국방부, 1951, B17쪽.

85)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2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706쪽.

하작전을 준비했다. 금강 교량이 파괴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상부에 전차와 자동포를 도하 할 수 있는 H2Π 세트 48개 또는 A3 공기선 20조를 보내주기를 건의했다.<sup>86)</sup> 7월 11일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사단은 전 병력으로 반돌격<sup>87)</sup>을 전개했다. 동시에 415고지를 우회하여 국군 1연대 CP가 있는 고지 후방 오창리에 침투하였다. 결국 15:00경 고립무원이 된 415고지의 1연대가 고지를 넘겨주고 철수하게 만들었다.<sup>88)</sup> 또한 진천 남쪽 1km 105고지에서는 4연대에 배속된 공병대대 1중대와 연대 공병소대가 작전 중에 강력한 국군 병력과 교전을 벌였다.<sup>89)</sup> 하지만 사단장의 결정적이지 못한 행동과 보병과 포병간 협조체제 미비로 인하여, 7월 10일 진천을 점령한 제2보병사단은 12일까지 국군의 공격에 의해 진격이 지연되었다.<sup>90)</sup>

진천 지역으로부터 청주로 기동한 제2보병사단은 공격 방향 기준으로 북한군 제1군단의 좌익을 엄호하면서 청주, 보은 방면으로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다.<sup>91)</sup> 청주 전투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고, 국군 수도사단이 방어를 실시했다. 당시 수도사단이 추정한 제2보병사단의 전투력은 병력 12,000명이며, 122mm 12문, 76mm 13문, 45mm 대전차포 43문, 82mm 박격포 78문, 자동포 13문이였다.<sup>92)</sup> 물론 이 수치는 전투개시 전 수도사단의 자체 추정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병력면에서만 봐도 최초 개전 시 병력 추정치로, 제2보병사단은 이미 춘천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다.

86) 『報告 제10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3., SA2009, Box7, Item#43.

87) 방어시 방어중심에 침입한 적을 맞받아가면서 진행하는 돌격으로써 적의 돌격에 반대하여 진행하는 전투행동.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123쪽.

88)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2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707쪽.

89) 『報告 戰死者 및 負傷者數 報告에 關하여』, 조병순 238부대 공병장, 1950.7.12., SA2009, Box7, Item#43.

90)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 보고서』 1, 203-204쪽.

91) 군사편찬연구소, 같은 책, 199쪽.

92)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1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육군본부, 2013, 14쪽.

제2보병사단은 7월 11일 청주 서쪽에 도달했다. 21:30에 113고지 남경사면에서 지휘소를 이동하여 행군하였으며, 공병대대 교도중대 1소대를 사단 전초로서 파견하여 행군로 수색과 국군이 파괴한 도로와 폭격으로 파괴된 도로를 수리 복구하여 포차 및 마차를 통과 시켜 사단행군을 보장하였고, 12일 04:30에 대략리<sup>93)</sup> 지점에 도착하여 사단장 지휘소를 구축했다. 또한, 연대에 배속된 공병 제1·2중대를 12일 16:00까지 철수시켜 사단 예비대로, 1개 소대를 반전차 추격대로 파견했다.<sup>94)</sup> 진천으로부터 이동한 사단은 미호천 북쪽에 진지를 구축 중, 국군 수도사단의 경계선을 파악하고 남일면 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13일 전차를 선두로 하여 강행도하하여 미호천 남안에 진출하였고, 교전 결과 수도사단은 13:30에 청주 남방 유관리<sup>95)</sup>로 철수했다.<sup>96)</sup>

기록에 의하면 제2보병사단은 청주를 7월 13일 점령하였고,<sup>97)</sup>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도 7월 13일 오후 늦게 청주를 점령하였다<sup>98)</sup>고 되어있다. 이후 4일간 교전이 벌어졌다. 사단은 14일 아침에 정찰 활동을 실시하고 오후부터 고은리<sup>99)</sup>와 부강리<sup>100)</sup> 방면으로 병력을 남하시켰다. 14일 사단은 수도사단이 요지인 431고지에 병력을 배치하기 전에 먼저 고지를 점령하였나, 수도사단 1연대가 고지를 공격하여 빼앗겼다. 그리고 279고지-280고지 일대에 병력을 배치한 국군 8연대와 교전을 하였다. 15일에는 8연대와 진지 교대를 한 17연대 및 1연대와 교전을 하였고, 결국 15시경 청주방면으로 후퇴하

93) 현) 청주시 다락리

94) 『報告 제12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18., SA2009, Box7, Item#43.

95) 현)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유관리가 고은리에 통합됨)

96)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1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19-20쪽.

97) 전사편찬회, 『韓國戰亂 一年誌 1950~1951』, B18쪽.

98)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보고서』 1, 204쪽.

99) 현)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100) 현)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였다. 또한 항공기의 공격으로 청주에서 남하하던 전차 13대 중 9대가 파괴되었다.<sup>101)</sup> 사단은 병력을 증강하여 다시 남하를 시도했다. 그동안 손실이 컸던 17연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였고, 431고지를 방어하던 8연대와 3연대도 보은 방향으로 철수하였다.<sup>102)</sup> 사단 지휘소는 7월 14일 대락리를 출발하여 16일 청주에 도착하였으며, 19일 청주에서 약 12km 전방에서도 국군과 교전이 있었다.<sup>103)</sup>

#### 나. 청주에서 황간까지

청주를 침공한 제2보병사단은 영동, 김천, 성주, 도평동을 경유하여 창녕으로 주력을 지향했다.<sup>104)</sup> 7월 18일 10:00 사단 참모부는 청주에서 행군전투명령을 하달하였다. 사단은 퇴각한 국군이 회인<sup>105)</sup>과 보은 계선에서 집결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사단은 증강무기와 함께 퇴각하는 국군을 추격<sup>106)</sup>하여 19일 미명기에 계선의 적을 소멸하고 19일 미명까지 보은 계선에 도달하여 만월리,<sup>107)</sup> 대안리 계선까지 진출하고자 했다. 출발준비 완료는 18일 17:00까지였으며, 출발점은 성남리였다. 행군로는 청주, 행정리,<sup>108)</sup> 문산리,<sup>109)</sup> 묘암리,<sup>110)</sup> 회인, 보은, 대안리,<sup>111)</sup>

101)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1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21-22쪽.

102)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같은 책, 23-24쪽.

103) 『報告 제14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19., SA2009, Box7, Item#43.

104) 육군정보국, 『괴뢰군연혁』, 92쪽.

105) 현) 보은군 회인면

106) 퇴각하는 적을 따라가면서 소멸하는 공격전투의 한 형식으로써, 공격성과 확대와 퇴각하는 적에 대해서 실시한다.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296쪽.

107) 현)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108) 현) 청주시 가덕면 행정리

109) 현) 청주시 문의면 문산리

110) 현) 청주시 문의면 묘암리

111) 현) 보은군 내북면 대안리

만월리 순이었다. 출발점 통과는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하게 했다. 교암리<sup>112)</sup>, 변원리<sup>113)</sup> 계선에 집결하게 하였으며, 공격개시는 특별 명령에 의하여 실시하게 했다.<sup>114)</sup>

7월 18일 주간에는 부족한 탄환을 보충하며 대오를 정돈하게 하였으며, 행군 시는 도로 좌우측으로 1열 종대로 하되 보병 뒤에 포병이 따라서며, 자기 구분대의 중강무기와 기재 일체는 타 구분대 서열 내에서 행군하지 못하게 했다. 정확이 있을 시 수시로 포병, 전차, 자동포가 행동(전방에 진출)할 수 있게 행군 질서를 엄격히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좌우측 경계(도로에서 약 2km)는 1개 중대 병력으로 선정하되, 연대참모부에서 열대대장행군관을 운용하게 했다. 행군은 종대로 통과함을 엄금하며 철저한 수색과 정찰감시로 통과하며 주력이 통과하지 못하게 했으며,<sup>115)</sup> 7월 20일 사단은 이동을 재개했다. 남일면에 집결하고 있던 사단은 공병대대 기준으로 18:00에 출발하여, 7월 21일 17:00에는 피발령<sup>116)</sup> 남쪽에 도착했다.<sup>117)</sup> 7월 22일에는 보은면 소재지, 23일에는 석봉산, 24일에는 청산<sup>118)</sup>을 지났다.<sup>119)</sup> 보은 점령완료는 23일이었다.<sup>120)</sup>

상급부대 명령들도 접수되었다. 23일에는 대전 점령에 대해 제1군단을 치하하는 김일성 명령 제026호가 하달되었다.<sup>121)</sup> 같은 날 전선사령부에서는 식료품 및 폭발물에 대한 경각성 제고에 관한 명

112) 현)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113) 현)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114) 『行軍戰鬥命令』,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7.18., ATIS Document, No.201103.

115) 같은 사료.

116) 현) 피발령. 충북 보은군 회인면에 있으며, 청주에서 보은으로 넘어오는 고개.

117) 『報告서』, 251군부대 부대장 류병준, 1950.7.16, SA2009, Box7, Item#43.

118) 현) 옥천군 청산면

119) 『戰鬥綜合報告 제15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25., SA2009, Box7, Item#43.

120)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현대편 조국해방전쟁사』 I, 사회과학원, 1981, 327쪽.

121) 『명령 제026호』,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1950.7.23., ATIS Document, No.201103.

령이 하달되었다.<sup>122)</sup> 제2보병사단은 계속 이동했다. 7월 25일 21:00 청산면을 출발하여 상용리<sup>123)</sup>에 7월 26일 04:30에 집결했다. 행군 중 공병은 폭격당한 자동차를 폭파하였고, 반전차 지뢰를 해체하여 행군로를 보장하기도 했다.<sup>124)</sup> 7월 26일에는 “국군과 유엔군은 대구를 중심으로 수 개의 방어선과 수다한 방어진지를 구축한다”는 전선사령부 지령 No.5가 접수되었다.<sup>125)</sup> 27일 17:00 용암리에 도달했다. 공병은 정찰을 통해 용암리와 원천리<sup>126)</sup>간 지뢰를 해체하여 행로를 보장했다.<sup>127)</sup> 27일에는 황간 측방에서 미 제1기병사단과 전투를 벌였다.<sup>128)</sup> 또한, 28일 새벽부터 황간 서측에서 거센 공격을 하였지만 저지당했다.<sup>129)</sup>

황간 전투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영동에서 철수한 미 제1기병사단이 주방어부대였다. 사단 공병부대는 용석리부터 황간까지 국군이 매설한 반전차 지뢰 14개를 해체하였으며, 황간교에 전기폭파 장치와 장치가 된 폭약 2개 상자와 그 지주에 장치된 폭발제를 제거하고, 또한 파괴된 도로 3개소와 황간교 및 교량을 복구 수리하여 황간까지 전차 및 자동포를 통과시켰다. 31일 03:00에는 매설된 반전차지뢰 11개를 해체했다. 공병정찰 성원들은 31일 김천 방향으로 가는 길을 정찰했다.<sup>130)</sup> 그동안 공병은 전투를 보장하기 위

122) 『命令 제108호 식료品 및 폭팔物에 對한 경각성 제고에 對하여』, 전선사령부 총사령관 김책, 1950.7.23, ATIS Document, No.201103.

123) 현)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124) 『戰鬪報告 제16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26., SA2009, Box7, Item#43.

125) 『指令 No.5』, 전선사령부 총참모장 강건, 1950.7.26., ATIS Document, No.201103.

126) 현) 영동군 황간면 원천리

127) 『戰鬪報告 제17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28., SA2009, Box7, Item#43.

128)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 국방부, 2008, 6쪽.

129) 군사편찬연구소, 같은 책, 192쪽.

130) 『戰鬪綜合報告 제18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31., SA2009, Box7, Item#43.

하여 공병정찰조, 지뢰해체조, 도로수리조, 도하기술적 보장대, 사단지휘소 구성대, 반전차 구축대, 이동장애물 설치대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왔다.<sup>131)</sup> 황간 전투 이후에는 공병대대가 먼저 황간 및 김천 방향 정찰을 실시했다. 7월 30일 10:00에 파견된 도로정찰대는 국군의 화력으로 인하여 황간 시가지 밖에 17:00까지 중지했다. 그 후 어둠을 이용하여 계속 정찰을 하여 황간-신촌<sup>132)</sup>-내동<sup>133)</sup>까지 가용한 도로 및 교량을 확인했다. 그리고 교량에 설치된 폭약을 발견하였고, 발견한 지뢰도 해체했다. 내동과 노천리 서쪽 고지와 장성리 니촌 고지 등에 있는 전투력 미상 국군을 발견하고, 울음리 방향에서 포음을 청취했다. 전차가 내동산 밑 길에 있는 것도 확인했다.<sup>134)</sup> 7월 28일에는 제1군집단지휘부 사령관의 7월 6일자 제51호 명령인 노획 무기 및 부상병들의 무기 취급에 대한 명령이 접수되었다.<sup>135)</sup> 또한, 사단장은 7월 29일에 총사령관 제108호를 이첩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금지했다.<sup>136)</sup>

131) 『戰鬪綜合報告 제23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8.12., SA2009, Box7, Item#43.

132) 현)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133) 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134) 『정찰情況報告서』, 251군부대 부대장 류병준, 1950.8.31., ATIS Document, No.201103.

135) 『命令 第51號 命令』, 1군집단지휘부 사령관 김웅, 1950.7.26., 『命令 No.18 로획武器 및 부상兵들의 武器取扱에 對하여』,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7.28., ATIS Document, No.201103.

136) 『命令 第19호 命令移牒에 關하여』,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7.29., ATIS Document, No.201103.

## 4. 재편성과 3단계 작전

### 가. 김천에서의 재편성 및 지례 방어작전

국내 기록으로 김천은 8월 2일 점령되었다.<sup>137)</sup> 제2보병사단은 8월 1일부터 4일까지 김천 일대에서 작전을 실시하였다. 공병은 국군이 파괴한 교량 및 도로 또는 매설한 반전차 지뢰를 수리 및 해체하여 전차 및 자동포, 포차 등을 통과시켰다.<sup>138)</sup> 8월 3일에는 공병대대 도로수리중대를 먼저 김천 시내 약 100m 전까지 진입시켰고, 김천 전까지 교량은 파괴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sup>139)</sup> 하지만 정찰보고에 의하면 대구 방향 도로에 있는 교량은 파괴되었으며, 철교도 파괴되어 보병이 겨우 통과할만하다고 했다.<sup>140)</sup>

8월 3일 하달된 전선사령부의 전투명령 제121호에는 “8월 6일 내로 대구와 부산을 해방시키라”고 명령되었다.<sup>141)</sup> 그리고 전선사령부의 명령에 따르면 상주, 김천, 안동 계선에서 퇴각한 국군은 동해안의 태백산맥과 낙동강 및 왜관과 대구 사이를 이용하여 기동 또는 진지방어로서 북한군 공격부대에 반돌격을 실시할 기도와 새로운 부대를 출동시키려고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각종 군사정찰을 조직하여 적정을 제때에 수집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sup>142)</sup> 전선사령부 명령 제122호도 하달되었다.

137) 전사편찬회, 『韓國戰亂 一年誌 1950~1951』, B25쪽.

138) 『戰鬪綜合報告 제20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8.6., SA2009, Box7, Item#43.

139) 『工兵部長동지 앞』 1, 공병대대장 류병준, 1950.8.3., SA2009, Box7, Item#43.

140) 『工兵部長동지 앞』 2, 공병대대장 류병준, 1950.8.3., SA2009, Box7, Item#43.

141) 『戰鬪命令 第121號』, 전선사령관 김책, 1950.8.3., 『命令 No.45』, 제1군집단 사령관 김웅, 1950.8.3., 『命令 No.25』,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8., ATIS Document, No.201103.

142) 『命令』, 전선司令部, 1950.8.3., 『命令 No.27』,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0., ATIS Document, No.201103.

검열결과 각 군단 지휘소와 각 사단 지휘소들은 전선으로부터 25~50km의 먼 거리에 위치하여 지휘체계를 상실하고 있다고 판명하고, 지휘소를 군대 전투서열에 가까이 두게 했다.<sup>143)</sup>

김천 점령 후, 집단군의 제2제대로서 집결하여 집단군장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부대를 재정리 및 보충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8월 4일 부분전투명령을 하달하여 4연대는 279.4고지에, 6연대는 대지에, 17연대는 응전에, 포구분대와 전차 및 자동포는 부곡동에, 사단참모부와 직속대는 약수 동남협곡에 각각 집결하게 하였다. 반항공대책을 위하여 반항공을 조직하고 엄밀한 위장대책과 항공감시를 하게 하였으며, 모든 운수기재를 이용하여 탄약과 포탄 및 전투물자의 수송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전투 개시 이래 낙오한 전투성원을 급속히 수집하여 부대를 정리할 것이며, 보충인원을 신속히 전투성원으로 편입시켜 전투훈련을 실시하여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게 했다.<sup>144)</sup> 이런 기본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부대정리공작계획도 하달되었다.<sup>145)</sup> 8월 2일자 포탄 및 기타 군수품 물자 절약에 관한 최고사령관 명령 제050호도 하달되었다.<sup>146)</sup> 8월 4일에도 전선사령부 명령으로 공격 전면에서 활동하는 인민유격대들을 속히 모집 장악하여 사단의 보충대대로 편성하라고 했다.<sup>147)</sup> 사단 예비성원 조직에 관한 전선사령부의 명령 No.84도

143) 『戰鬪命令 第122號』, 전선참모부, 1950.8.3., 『命令 No.70』, 제1군집단 사령관 김웅, 1950.8.3., 『命令 No.23』,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6., ATIS Document, No.201103.

144) 『部分戰鬪命令』,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4., ATIS Document, No.201103.

145) 『部隊정리 期間에 戰鬪준비를 爲한 日日工作計劃』, 제2보병사단장 최현 비준, 1950.8.4., ATIS Document, No.201103.

146) 『命令 第50호 포탄 및 기타 군수품 절약의 건에 關하여』,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1950.8.2., 『命令 No.29』,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0., ATIS Document, No.201103.

147) 『命令』, 전선사령부, 『命令 No.71 전선사령부 명령이첩에 關하여』, 제1군집단 사령관 김웅, 1950.8.4., 『命令 No.23』,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6., ATIS Document, No.201103.

10일에 이첩 하달되었다. 이것은 명령 78호로 기하달된 예비대대 조직에 관한 명령의 보충이었다.<sup>148)</sup> 전선사령부에서는 7일에 전선을 증원하기 위한 예비대 조직에 많은 기술 인재와 지휘관들이 필요하다며, 자동포대대 중 남은 인원들은 전부 평양조직보충국으로 파견하게 했다.<sup>149)</sup>

미군 3~4개 사단이 대구, 김천, 대전 방향으로 반돌격할 계획으로 공격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대구 방향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한 제2보병사단에게 8월 8일 19:00까지 출발준비를 완료하고, 20:00에 약수를 출발점으로 하여 행군로를 거쳐 정해진 계선을 점령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할 임무가 주어졌다.<sup>150)</sup> 행군로는 제 4·17연대는 광명리, 상원리, 지례, 내배리(여배리)이며 행군 조절점은 No.1 공명동, No.2 상원리, No.3 지례, 출발점은 약수로 했다. 방어구역은 4연대는 538.3고지, 335.0고지, 상원리, 금평동, 두상 등의 방어 전연을 차지하고, 중심은 송천리 전 지역에서 주요 개소마다 방어를 실시할 것이며, 김천대로를 따라 서쪽 방향으로 반돌격할 준비를 하게 했다. 또한, 4연대에서는 연대 76mm~45mm 반전차포대대 2중대와 공병대대 1중대 및 전차대대로서 증강된 1개 대대를 김천 남단 약수와 응전 남쪽 무명고지 양계선에 배치하고 왜관으로부터 대도로를 통한 반돌격을 불허하며 적을 소멸하게 했다. 17연대는 화신평(하신평), 무명고지, 중리, 1032.2고지를 전연으로 하고 평촌리 일대를 계선으로 한 방어구역을 차지하고 지역요소마다 방어 조직을 하며, 광성동, 금암동, 왜관 방향으로 반돌격할 준비를 하게 했다. 6연대는 단독행군 중대로서 8일 20:00 정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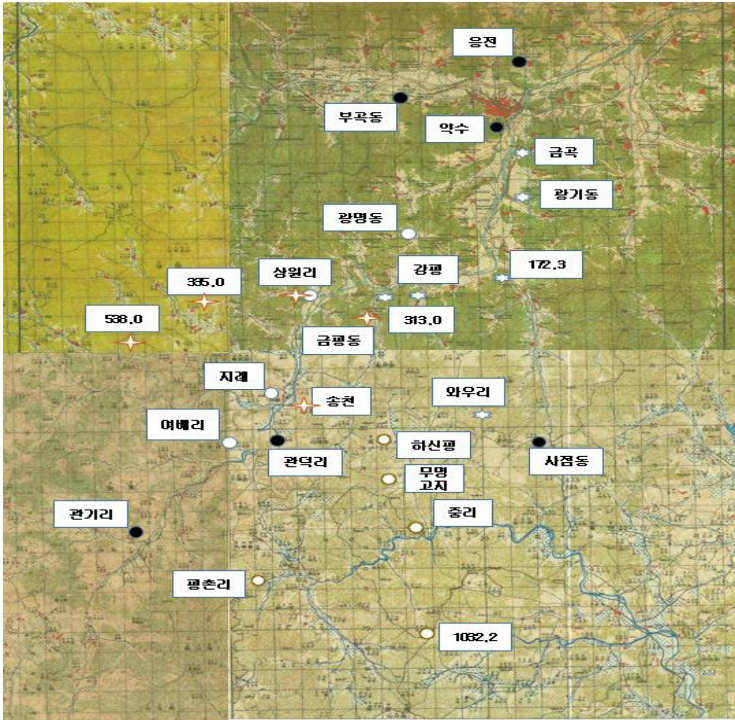
148) 『戰鬪命令 제32호』, 전선사령부 총참모장 강건, 1950.8.5., 『命令 No.29』,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0, ATIS Document, No.201103.

149) 『戰鬪命令 제135호』, 전선사령관 김책, 1950.8.7., 『命令 No.28』,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0., ATIS Document, No.201103.

150) 『行軍戰鬪命令 No.26』,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8., ATIS Document, No.201103, 1쪽.

에 금곡을 출발하여 광기동, 대평으로 행군하여 303고지, 강평, 172.3고지, 막리를 전연으로 하고, 와우리 일대를 방어구역으로 설정하고 김천과 대구 방향으로부터의 반돌격을 불허하며 완전히 소멸하게 했다. 사단 지휘소는 관덕리에 두었으며 사단 후방은 광기리에 위치시켰다.<sup>151)</sup> 행군중대는 17연대를 사단 전위대로 하고 4연대를 사단 주력으로 한 행군서열로서 전위대의 출발선 통과는 8월 8일 20:00 정각이었다.<sup>152)</sup>

<그림 4> 김천 및 지레 작전 지형도



151) 『行軍戰鬥命令 No.26』,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8., ATIS Document, No.201103, 1-2쪽.

152) 같은 사료, 2-3쪽.

제2보병사단에서 8월 11일에 보고한 현재 사단 전투력은 <표 4>와 같이 군관 694명, 하사 1,475명, 전사 4,884명으로 총 7,053명이었다. 개전 이래 전사자 총수는 4,813명으로 참전 초기 사단의 총병력은 11,796명이었다.<sup>153)</sup> 이 인원통계는 부대별 세부인원과 최초 인원, 전사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재편성간에 신대원(新隊員)<sup>154)</sup>은 3차례 보충되었으며, 1차 810명, 2차 910명, 3차 60명으로 총 1,780명이 보충되었다.<sup>155)</sup>

&lt;표 5&gt; 인원 통계

| 구분대       | 군관  | 하사    | 전사    | 계      | 비고(전사자) |
|-----------|-----|-------|-------|--------|---------|
| 제235군부대   | 79  | 86    | 158   | 323    | 244     |
| 238(4연대)  | 106 | 271   | 974   | 1,351  | 789     |
| 242(17연대) | 132 | 345   | 1,133 | 1,610  | 1,245   |
| 244(6연대)  | 96  | 203   | 1,062 | 1,361  | 483     |
| 247       | 112 | 219   | 605   | 956    | 824     |
| 268       | 14  | 24    | 219   | 257    | 223     |
| 256       | 23  | 66    | 103   | 192    | 169     |
| 235(저)    | 3   | 28    | 23    | 54     | 51      |
| 251(공병대대) | 3   | 59    | 184   | 273    | 243     |
| 253       | 30  | 51    | 198   | 279    | 229     |
| 235(우)    | 7   | 16    | 47    | 70     | 63      |
| 266       | 36  | 37    | 144   | 217    | 166     |
| 262       | 26  | 70    | 14    | 110    | 84      |
| 합계        | 694 | 1,475 | 4,884 | 7,053  | 4,813   |
|           |     |       | 최초 인원 | 11,796 |         |

\* 출처 : 『新隊員 접수 統計』

153) 『人員統計』, 1950.8.11., ATIS Document, No.201103, 2-3쪽.

154) 새로 입대한 대원 또는 입대한지 오래되지 않은 대원 = 신입병사 ↔ 구대원.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184쪽.

155) 『新隊員 접수 統計』, 1950.8.10., ATIS Document, No.201103.

재편성간 부대관리 및 군기강화도 전개되었다. 8월 12일에는 위  
 슬경무관 제도 조직 및 강화에 관한 명령이 하달되었다.<sup>156)</sup> 8월 13  
 일 사단장은 명령 No.28호에서 부대의 전투보고는 매일 2차례씩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6연대에서는 부대가 집결  
 한 이후 아직 한 차례도 전투보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  
 다.<sup>157)</sup> 14일에는 8·15해방 5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하여 최고사  
 령관은 추가규정량의 특별식사 조직이 승인되었고,<sup>158)</sup> 대구에서 호  
 열자<sup>159)</sup>가 유행하고 있으니 예방주사 실시와 음수, 숙박 등을 금지  
 하며 지방민과 접촉을 절대 금지할 것이 지시되었다.<sup>160)</sup> 16일에는  
 제1집단 문화사령관의 지령으로 포로살상 엄금이 지시되었다.<sup>161)</sup>

#### 나. 도하작전 준비 및 낙동강 도하작전 개시

제2보병사단은 차후 작전으로 낙동강 도하를 준비했다. 주 담당  
 은 공병으로, 공병장은 은석동<sup>162)</sup>에 위치하고 있었다. 공병 역시 8  
 월 4일부터 부대인원을 보충·정리하고 각종 전투기재를 정비했다.  
 6일 현재 북한군 제15보병사단은 선산에서 2km 떨어진 덕곡<sup>163)</sup>에  
 있으며, 국군이 낙동강을 건너 방어하고 있어 아직 선산 시내에는

156) 『命令 No.30 衛戍경무관 制度 組織 및 強化에 관하여』,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8., ATIS Document, No.201103, 2-3쪽.

157) 『命令 No.31 定期戰鬪報告制度 強化에 關하여』,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3., ATIS Document, No.201103.

158) 『命令 第114號』, 전선사령관 김책, 1950.8.14., 『命令 No.32』,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4., ATIS Document, No.201103.

159) 胡熱者, 콜레라

160) 『電報命令號』, 전선사령관 김책, 1950.8.15., 『命令 No.34』,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5., ATIS Document, No.201103.

161) 『지령 포로살상 엄금에 대하여』, 제235군부대 문화부 문화부대장 최봉철, 1950.8.16., ATIS Document, No.200790.

162) 현)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163) 현) 구미시 선산읍 덕곡마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sup>164)</sup> 공병의 6일 선산 방향 정찰보고에 의하면 선산을 거쳐 2km 가면 강촌이 있는데 이 지점에 낙동강 도하장이 있었다. 강폭은 500m이며 물넓이는 150m, 깊이는 3m, 토질은 모래, 얇은 곳은 1m로 이곳은 자동차는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파악했다. 선산까지 도로는 완전했다.<sup>165)</sup> 이후 8일에는 정찰내용이 종합보고 되었다. 공병은 앞으로 행동할 남행 국도 방향으로 선산, 왜관, 성주에 도로상태 및 도하구역 정찰성원을 파견했다. 이미 파악한 선산 지점이 도하 가능 지점이며, 낙동강을 도하하기 위하여 김천 시내에서 도하기재를 수집하고 있으며, 청주에 보관한 공병대대의 도하기재도 차량 35대로 동원하여 운반했다. 또한, 이미 보유한 각종 폭약 이외에도 노획한 반전차지뢰와 폭약을 소유하고 있었다.<sup>166)</sup> 8월 8일에는 도하중대의 김천강 정찰 결과, 양안 통행로는 견고하며, 도하 통로는 파괴되지 않았고, 물넓이는 100m, 수심은 0.3m로 저수에는 가마니가 깔려있고, 전차도 통과하는 등 도하는 양호하다고 보고되었다.<sup>167)</sup>

관덕리에 있던 사단 지휘소는 8월 13일 09:00에 이동을 시작하여, 23:00에 사점동으로 이동했다.<sup>168)</sup> 8월 15일에는 부대의 이동 및 행군 시 서열에 정비성을 보장하며 행군 질서를 정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정리원이 조직되었다.<sup>169)</sup> 이어서 낙동강으로 이동

164) 『情況에 依하여』, 251군부대 부대장 류병준, 1950.8.6., SA2009, Box7, Item#43.

165) 『工兵部長 동지앞 報告書』, 1950.8.6., SA2009, Box7, Item#43.

166) 『戰鬪綜合報告 제21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8.8., SA2009, Box7, Item#43.

167) 『金泉江 偵察 結果보고에 關하여』, 251군부대 부대장 류병준, 1950.8.8., ATIS Document, No.201103.

168) 『戰鬪綜合報告 제24호』, 235군부대 공병부, 리갑령 공병장, 1950.8.13., SA2009, Box7, Item#43.

169) 『命令 No.35』, 第2步師參謀部, 崔煥 師團長, 1950.8.15., ATIS Document, No.201103.

이 시작되었다. 김천과 지례에서 휴식 및 재편성, 방어작전을 마친 사단은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었고, 김천 및 사점동으로부터 고령 및 합천까지 부대 행군을 마쳤다.<sup>170)</sup> 8월 17일부터 사단은 전선에 투입되어 국군에 맹공을 개시했다.<sup>171)</sup> 17일 창녕으로 이동한 공병은 1개 공병중대를 사단 전위대로 파견하여 공병정찰 및 지뢰 해체, 도로수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성주에 있는 사단 도하기재 및 지뢰와 폭발물을 창녕으로 운반하였다.<sup>172)</sup> 공병대대는 17일 19:00에 출발하여, 18일 18:00에 도착하였다.<sup>173)</sup>

이후 제2보병사단은 다시 구 지휘소이던 합천을 출발하여 대곡리에 도착하였고, 관하 각 부대들은 낙동강 강행도하 조직을 위한 준비를 했다.<sup>174)</sup> 그리고 미 제23연대를 공격하기 위해 도하가 가능한 지점(내재 나루터 · 적포교 · 삼밭머리 나루터)에서 도하준비를 했다.<sup>175)</sup> 그리고 8월 31일 22:00경 낙동강을 도하하여 강행도하로써 미군을 공격했다.<sup>176)</sup> 이로써 낙동강 돌출부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미 제8군은 창녕과 영산을 북한군에게 빼앗기면 대구와 부산 간 도로가 차단됨으로써 전체 작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사수하고자 예비대를 투입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였다.<sup>177)</sup>

170) 『命令 No.42 部隊行軍實施 결과에 關하여』,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20., ATIS Document, No.201103.

171) 전사편찬회, 『韓國戰亂 一年誌 1950~1951』, B33쪽.

172) 『戰鬪報告 제25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령, 1950.8.17., SA2009, Box7, Item#43.

173) 『行軍에 관한 報告』, 251군부대 참모장 정명순, 1950.8.18., SA2009, Box7, Item#43.

174) 『戰鬪報告』, 235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8.27., ATIS Document, No.201103.

175)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국방부, 2008, 242쪽.

176) 『戰鬪보고 락동강 도하에 관하여』, 238군부대 공병장 조병순, 1950.9.5., SA2009, Box7, Item#43.

177)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43쪽.

## 5. 맺음말

제2보병사단은 북한군의 주요 공격부대였다. 6·25전쟁 전에 함흥에서 출발하여 화천에 전개하였고, 전쟁발발 시에는 춘천-가평 축선 공격을 담당했다. 한강 도하 이후 7월에는 광주, 용인을 거쳐 안성과 이천으로 이동하였으며, 진천과 청주를 점령했다. 이후 보은을 거쳐 황간을 점령하고, 김천에 도착했다. 8월 김천에서는 예비대로 휴식과 재편성을 실시했다. 더불어 지례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면서 차후 작전인 낙동강 도하작전 준비에 매진했다. 그리고 8월 하순 김천을 떠나 합천과 고령으로 이동하여 낙동강 도하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공간사와 여러 책자에 이곳저곳 분산되어 있고 정리되지 않은 제2보병사단의 6·25전쟁 초기 작전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기존 국내에서 활용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다루었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은 새로운 사료들을 확인하여 꼼꼼히 분석하여 보충했다. 예를 들어 개전 직전 전투명령은 공간사에서도 다루어진 사료이지만 공간사 집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되어 활용되었던 것을 이 연구에서는 꼼꼼하게 기록했다. 또한, 공간사가 국군 기준으로 서술되면서 그 서술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던 사단 기록들을 추가했다. 한강 도하작전 시 모습을 확인하였고, 남으로의 이동과정에서 수행한 전투기록들도 확인했다. 예비대로 지정되어 김천에서 재편성하는 내용도 살폈고, 낙동강 도하작전을 준비하는 활동도 다루었다. 이러한 사단 작전수행의 재구성에는 단지 제2보병사단을 이해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단의 작전수행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군의 주요 사단이 어떻게 작전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6·25전쟁 시 북한군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

군 작전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전쟁 전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방식의 기초 연구들이 쌓여야지만 6·25전쟁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내실화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에 수행한 연구는 매우 협소한 범위의 연구임에도 학술적 의미가 있는 ‘사료 중심의 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부분의 6·25전쟁 연구가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집중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전쟁 당시 북한군 작전에 대한 사료 정리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는 방법론적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초기 연구자들과 공간사 집필자들은 북한군 관련 사료 활용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RG242 자료를 활용하여 공간사와 연구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사료는 강제로 나누어져 책의 이곳저곳에 활용되었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살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리고 집필과정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활용되지 않았다. 그렇게 공간사와 연구결과가 한 번 나오게 되면, 이후 연구자의 대부분은 그 결과물과 각주를 손쉽게 재인용 했다. 그리고 사료 확인도 기존에 확인되어 공간사나 연구서에 나온 그 사료만 반복해서 활용하고, 관련된 더 많은 사료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 기초 사료를 찾고, 분석하는 작업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RG242 사료지만 각각의 연구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되어진 결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되지 못했고 연구에 관심 주제로 거론되지 못했던 북한군 부대 단위의 작전내용을 정리했다. 이 논문을 통해 최소 북한군 제2보병사단은 함흥에서 낙동강까지 이러한 작전들을 수행했다고 알 수 있게 되었고, 차후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활용해 자신들의 연구에 필요한 사료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연구는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다. 기초 연구들이 쌓여야만 더 큰

규모의 분석과 이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6·25전쟁의 전체와 국군의 세부 전투를 연구하는데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기존 연구서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연구된 자료를 활용하면 정확한 서술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만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필자 역시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모든 사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용한 사료만을 분석하였고, 다양한 부대의 작전을 다루지 못하고 일부 부대(특히 공병)을 주로 서술했다는 한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원고투고일 : 2020. 7. 2, 심사수정일 : 2020. 8. 13, 게재확정일 : 2020. 8. 25.)

주제어 : 한국전쟁, 제2보병사단, 북한군, 조선인민군, 공병작전

<참고자료>

북한군 제2보병사단 기동로(1950.6~8)



## <참고문헌>

### 1. 사료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0708, 『제2사단 철도수송 계획표』

－ 第2師團 鐵道輸送 計劃表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0767, 『지령-제2보사참모 부, 1950.6.24』

－ 指令 第15号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0789, 『봉급수지 증빙서(전도금청 산명세서, 군관봉급명단 외), 조선인민군 제242군부대(1950.5.3)』

－ 軍官俸給名單, 戰士下戰士支給俸給計算書 등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0790, 『제235군부대 지령 -포로살상 엄금에 대하여(1950.8.16)』

－ 지령 포로살상 엄금에 대하여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1103, 『부대정리기간에 전투준비를 위한 일일공작 계획』

－ 鬪命令 第001号, 報告書 鬪鬪경과 報告에 關하여, 行軍鬪鬪命令, 명령 제026호, 정찰情況報告서, 命令 第108호 食料品 및 폭팔물에 對한 경각성 제고에 對하여, 命令 第51號 命令, 鬪鬪命令 第121號, 命令 No.18 로획武器 및 부상兵들의 武器取扱에 對하여, 命令 第19호 命令移牒에 關하여, 命令 No.45, 命令 No.25, 命令, 命令 No.27, 鬪鬪命令 第122號, 命令 No.23, 部分鬪鬪命令, 命令 No.29, 部隊정리 期間에 鬪鬪준비를 爲한 日日工作計劃, 命令 第50호 포탄 및 기타 군수品 절약의 건에 關하여, 命令 No.71 전선사령부 명령이첩에 關하여, 命令 No.84 사단 예비성원 조직에 關하여, 鬪鬪命令 第32호, 鬪鬪命令 第135호, 命令 No.28, 行軍鬪鬪命令 No.26, 人員統計, 新隊員 접수 統計, 命令 No.30 衛戍경무官 制度 組織 및 強化에 關하

야, 命令 No.31 定期戰鬪報告制度 強化에 關하여, 命令 第114號, 命令 No.32, 電報命令號, 命令 No.34, 命令 No.35, 金泉江 偵察 結果보고에 關하여, 命令 No.42 部隊行軍實施 結果에 關하여, 戰鬪報告

NARA, RG242, SA2009, Box7, Item#42, 『사단비상용 폭발물 및 부속품 통계표, 조선인민군 235군부대, 1950.6.11』

— 團非常用폭發物및其의附屬품統計表, 工兵小隊集結區域到着에 關하여, 工兵技術器材申請에 關하여

NARA, RG242, SA2009, Box7, Item#43, 『보고접수철(235군부대 5과), 1950.6』

— 渡河를 爲한 人員 및 戰鬪器材 重量計算表, 工兵戰鬪報告, 종합전투보고, 報告 제7호, 報告 제8호, 報告 제9호, 報告 제10호, 報告 제11호, 報告 제12호, 報告 제14호, 戰鬪綜合報告 제15호, 戰鬪報告 제16호, 戰鬪報告 제17호, 戰鬪綜合報告 제18호, 戰鬪綜合報告 제20호, 戰鬪綜合報告 제23호, 報告 공병소대인원통계 및 부상자통계에 관하여, 報告 戰死者 및 負傷者數報告에 關하여, 報告서, 工兵部長동지 앞 1, 工兵部長동지 앞 2, 情況에 依하여, 工兵部長 동지앞 報告書, 戰鬪綜合報告 제21호, 戰鬪綜合報告 제24호, 戰鬪報告 제25호, 行軍에 關한 報告, 戰鬪보고 락동강 도하에 關하여

## 2. 단행본

군사감실, 『6·25사변사』, 육군본부, 1959.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국방부, 2005.

\_\_\_\_\_, 『6·25전쟁사』 3, 국방부, 2006.

\_\_\_\_\_, 『6·25전쟁사』 4, 국방부, 2008.

\_\_\_\_\_, 『6·25전쟁사』 5, 국방부, 2008.

\_\_\_\_\_,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국방부, 2001.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현대편 조국해방전쟁사』 I, 사회과학원, 1981.

-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나남출판, 1996.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1輯 수도사단 戰鬪祥報』, 육군본부, 2013.
- \_\_\_\_\_, 『6·25戰爭史料 第2輯 수도사단 戰鬪祥報』, 육군본부, 2013.
- \_\_\_\_\_, 『6·25戰爭史料 第28輯 5·6사단 戰鬪祥報』, 육군본부, 2013.
- 육군본부, 『군사용어』, 2017.
- 육군정보국, 『괴뢰군연혁』, 육군본부, 1958.
- 장준익, 『北韓人民軍隊史』, 서문당, 1991.
- 전사편찬회, 『韓國戰亂 一年誌 1950~1951』, 국방부, 1951.
- 정보사령부, 『북한군 군사용어집』, 2017.
-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의 군사』, 경인문화사, 2006.

### 3. 연구논문

- 고재홍,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전쟁지도체계 연구」, 『현대북한연구』 8(2), 2005.
- 고재홍, 「북한군의 비상시 평시 군사 지휘체계 연구」,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2005. UCI : G704-001526.2005.14.2.010
- 권주혁, 「한국전쟁 기갑전의 전투패턴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경수, 「인민군 포병의 초기 성장과정 연구 : 창설기부터 한국전쟁기간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광수, 「한국전쟁 개전 당시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옹진전투」, 『군사』 41호, 2000.
- \_\_\_\_\_,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총서 5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경남대학교출판사, 2006.
- \_\_\_\_\_,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 수행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김기옥, 「한국전쟁 초기, 춘천 흥천 전투가 전세에 미친 영향」, 『군사』 12, 1986.

- 김선호, 「해방 직후 조선민주당의 창당과 변화」, 『역사와 현실』 61, 2006.  
 UCI : G704-000054.2006..61.001
- \_\_\_\_\_, 「해방 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86, 2012.  
 UCI : G704-000054.2012..86.008
- \_\_\_\_\_, 「해방 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 『군사』 82, 2012.  
<http://dx.doi.org/10.29212/mh.2012..82.179>
- \_\_\_\_\_, 「한국전쟁 이전 북한 공군 간부의 구성과 정치연합체제의 구축」,  
 『북한연구』 19(3), 2016.  
<http://dx.doi.org/10.17321/rnks.2016.19.3.002>
- \_\_\_\_\_, 「북한 보안간부훈련 대대부의 간부 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역사문제연구』 38, 2017.
- \_\_\_\_\_,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유일지도체제의 기원」, 『현대북한연구』  
 22(3), 2019.  
<http://dx.doi.org/10.17321/rnks.2019.22.3.002>
- 박희성, 「북한 해군의 6·25전쟁 준비와 초기 전투 : 제599군부대 창설과  
 전사 기록」, 『군사연구』 147, 2019.
- \_\_\_\_\_, 「6·25전쟁 초기 북한 해군의 해안방어 작전 : 원산 제588군부대  
 작전을 중심으로」, 『사총』 98, 2019.  
<http://dx.doi.org/10.16957/sa..98.201909.29>
- 서홍석, 「조선인민군 충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1948~1950)」, 고려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윤경섭, 「한국전쟁기 북한군 ‘인민군최고사령관’제도 도입의 과정과 의미」,  
 『사림』 65, 2018.  
<http://dx.doi.org/10.20457/SHA.65.10>
-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 109, 2018.  
<http://dx.doi.org/10.35865/YWH.2018.09.109.493>

- 이성춘·박희성, 「6·25전쟁 시 북한군 연대편성과 해외파 간부연구」, 『인문사회 21』 제11권 3호, 2020.  
<http://dx.doi.org/10.2143/HS21.1.3>
- 이신재, 「6·25전쟁기 북한 공군의 성장 과정 고찰」, 『군사』 89, 2013.  
<http://dx.doi.org/10.29212/mh.2013..89.197>
- 장성진, 「6·25전쟁 이전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징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4(2), 2011. UCI : G704-001615.2011.14.2.002
- \_\_\_\_\_, 「낙동강 영산전투시 북한군의 도하작전 분석」, 『군사』 78, 2011.  
<http://dx.doi.org/10.29212/mh.2011..78.129>
- \_\_\_\_\_,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 의미」, 『현대북한연구』 15(3), 2012.
- \_\_\_\_\_, 「북한군 창설기 군 간부 양성교육에 대한 고찰, 1945~50」, 『한국군사학논집』 69(3), 2012.  
<http://dx.doi.org/10.31066/kjmas.2012.68.3.008>
- \_\_\_\_\_,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비정규전 교리와 그 함의」, 『통일정책연구』 21(2), 2012. UCI : G704-001526.2012.21.2.004
- \_\_\_\_\_,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연구」, 『군사』 83, 2012. DOI : 10.29212/mh.2012..83.1
-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서문당, 1981.
- 한성훈, 「조선인민군의 당-국가 인식과 인민형성-동원, 징병, 규율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89, 2011.  
UCI : G704-000024.2011..89.003

(Abstract)

## The Operation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 Combat Situation report, From Hamhung to the Nakdong River -

Park, Hui-seong

It is hard to study the reality of North Korean Army.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at, above all, one of the the biggest reason is not easy to find and access to North Korean Army's documents. However, in order to study the Korean War correctly,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Army is also very essential. Thus far, it is true that there are few studies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Army. Most were studied piecemeal in the course of studying the operations of the Korean and U.N. forces. For this reason, I selected one unit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analyzed it in detail. The unit is the Nk 2nd Infantry Division, which I have found the most documents. The 2nd Infantry Divis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was the main offensive unit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The 2nd Infantry Division stationed in Hamheung before the war broke out, and then moved to the train and developed in Hwacheon during the early stage of war. And attacked Chuncheon on June 25, 1950. However, as the battle of Chuncheon was failed and the first mission had been changed. The 2nd Infantry Division went through Gapyeong and crossed the Han River from Paldang. In July, it moved to Anseong and Icheon through Gwangju and Yongin, then occupied Jincheon and Chongju.

Afterwards, it took over the Hwanggan through Boeun and arrived at Gimcheon. In Gimcheon in August 1950, the 2nd Infantry Division was not allocated directly into the front line, but performed the task

as the reserve forces, took a rest and need reorganization. It also carried out defense operations against the Korean and the U.N. armed forces. After that it worked hard to prepare for the cross-border operation of the Nakdong River. Finally, The 2nd Infantry Division was allocated into the Nakdong River in late August.

Keywords : the Korean War, The 2nd Infantry Division, North Korean Army, Korean People's Army, Engineering Operation.